

순천만 갈대축제 “이틀간 2만4000명 찾았다”

갈대소리 가득한 순천만과 만나
짱뚱어 마라톤·백패커의 밤 인기
재즈 페스타 연계로 볼거리 제공

지난 26~27일 이틀간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열린 제25회 순천만갈대축제가 2만 5000여명의 방문객을 끌어 모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8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순천만갈대축제는 ‘새 보고, 갈대 보고, 순천 보고’를 주제로 개막식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순천만의 공간적 특성을 감안해 대중이 즐겁게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출입통제 시간에 원시적인 순천만과 교감하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람사르길 걷기 대회, 재즈 페스타를 연계해 탐방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높였고, 웹툰작가 기안84가 제안한 짱뚱어 마라톤 대회와 순천만 탐조는 전 연령층이 참여하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사전 예약을 받아 새벽과 야간에 ‘무진선상투어’, ‘백패커의 밤’, ‘갈대숲 별빛 데이

트’는 60% 이상이 타지역 거주자로 1박 2일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순천만의 자연물을 이용해 만든 순천만 보전역사 전시와 다양한 체험판대 부스도 운영됐으며, 황금빛 갈대숲에서 펼쳐지는 클래식과 진환경 버스킹 공연이 한데 어우러져 탐방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10월의 순천만을 선사했다.

시는 축제 폐막 이후에도 순천만 여행이 시작되는 시즌임을 감안해 포토존으로 활용도가 높은 진환경 갈대축제 무대와 흑두루미 소망터널 한지등, 소원글쓰기, 순천만 보전역사 전시물은 그대로 남겨 놓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순천만 갈대축제를 일회성 행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 결과를 분석해 향후 상설 프로그램화 시키고 순천만이 가야 할 생태축제의 새로운 이정표를 정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금빛 갈대꽃은 12월까지 절정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열린 순천만갈대축제에 2만4000여명이 다녀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제25회 순천만 갈대축제 체험부스. 순천시 제공

을 이루며 흑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등 겨울철새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어 갈대 축제 이후에도 탐방객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순천=배서준 기자

미디어파사드 메시지 표출 ‘눈길’ 여수 종포해양공원

여수시가 가족과 친구, 연인 등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종포해양공원 미디어파사드에 띄우며 특별한 시간을 선사하고 있다.

미디어파사드는 매체(media)와 건물의 외벽을 뜻하는 파사드(facade)의 합성어로 통유리 등 구조물 외면에 조명을 비춰 영상을 송출하는 기법을 말한다.

시는 5팀을 선별해 매주 금·토·일요일 오후 8시 10분부터 50분까지 종포해양공원 밤빛누리 앞 광장에 설치된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2분간 메시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희망 날짜 5일 전까지 여수시 관광문화 누리집(www.yeosu.go.kr/tour)-‘추천코스★이벤트’-‘미디어파사드’에 접속해 20자 이내의 문구를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하며 소중한 사람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이순신광장부터 낭만포차에 이르는 종포해양공원 약 1.5km 구간에 미디어파사드와 미디어 월, 디지털 사인지 등을 설치해 스마트 관광 거리로 조성해가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GS칼텍스, 여수 무인도 해양정화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

GS칼텍스는 지난 26일, 여수시 돌산읍 까막섬(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일원에서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OSEAN)’과 해양환경보호단 ‘레디(ReDi)’, 사단법인 ‘섬즈업’ 관계자를 비롯한 GS칼텍스 임직원 봉사대 등 50여명이 각 단체의 특징점을 살려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GS칼텍스 퇴직사우회 등으로 구성된 임직원 봉사대와 시민 자원봉사자들은 까막섬 해안가를 돌며 폐부표와 폐그물, 폐가전 등 각종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을 정리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담당자는 “두시간 정도 구슬땀을 흘리며 정화 작업한 결과, 1.5톤 정도가 수거됐다”면서 “GS칼텍스의 후원으로 지속적인 해양정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한달동안 진행한 임직원 걸음기부 캠페인을 통해 기부금 5천만원을 마련해 환경단체 등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여수에서부터 ‘바다쓰레기 줍기’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시민 다이버로 구성된 봉사단 12팀을 추가 선발하여 전국적인 ‘바다쓰레기 소탕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섬지역 드론배송 서비스 범위 확대 여수시, 특산품 역배송 추진

여수시가 섬 드론배송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내달부터 섬 특산품 역배송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역특산품인 개도 침전복점과 돌문어 숙회 등을 JCS호텔, 라마다호텔, 노블호텔, 디아크리조트, 스톤아일랜드 등 돌산 소재 호텔·리조트 5개소에 매주 금·토요일 배송할 계획이다.

또한, 여수제일신협 등 섬 복지후원을 희망하는 업체를 발굴해 후원 물품을 경로당으로 배송해 왔는데 이번에 추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반찬배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여수시는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송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대항간도, 소항간도, 제도, 상화도, 하화도, 금오도(2개소) 등 10개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5kg 이하 생필품, 의약품, 배달음식, 선박 수리용품 등을 권역별로 주 2회 배송하며, 배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담주변지역 배드민턴 친선경기 K-water 주암댐지사

K-water 주암댐지사는 지난 27일 ‘제11회 주암댐 주변지역 배드민턴 클럽 친선 경기전’을 석곡면 석곡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K-water가 매년 주암댐 주변지역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는 친선경기는 순천시, 보성군, 화순군, 곡성군의 배드민턴 동호회 8개클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간 화합의 장을 마련했고, 참가팀들의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오병동 주암댐지사장은 “댐 주변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며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 더욱더 행복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늘 소통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광양시립국악단이 오사카 전남도민회의 초청을 받아 일본에서 공연을 선보인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립국악단, 오사카에서 공연 펼친다

‘뿌리 깊은 나무-샘이 깊은 물’ 주제 31일 오후 ‘크레오 오사카 중앙홀’

광양시립국악단이 오사카 전라남도도민회(회장 남광일)의 초청을 받았다. 국악단원 40명은 ‘제2회 전라남도의 향기’ 스페셜 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인다.

광양시는 오는 31일 오후 6시 ‘크레오 오사카 중앙홀’에서 광양시립국악단이 ‘뿌리 깊은 나무-샘이 깊은 물’을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을 역임한 작곡가 겸 지휘자인 류형선 예술감독이 올해 4월에 취임한 이래 추진된 첫 해외 공연이다. 류형선 예술감독은 취임과 함께 ‘창작국악의 거점 국악단’이라는 새 비전을

을 제시했으며, 광양시립국악단원들은 이를 기점으로 삼아 촘촘한 연습 일정을 소화하며 기량을 길렀다.

광양시립국악단은 창작국악의 정점을 포획한 수준 높은 작품들을 10월의 마지막 밤, 오사카 문화예술중심지에서 60분 동안 연주한다. 무대에서 연주되는 주요 작품들에는 지휘자와 악보 없이 오로지 연주자들만의 호흡으로 합을 맞추는 ‘국악관현악 산조합주’, 창작국악의 예술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는 국악 실내악 ‘미로’, 광양시립국악단 연희단원들의 밀도 높은 기량을 선보일 설장구 협주곡 ‘마침내 바다’가 있다.

초청공연인 만큼 뜻깊은 순서도 준비돼 있다. 남광일 오사카 전라남도도민회장이 일본 동요 ‘고추잠자리’ 연주를 요

청함에 따라 류형선 감독이 해당 동요와 ‘아리랑’을 접목해 편곡한 곡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류형선 예술감독은 “기초 지자체 소속 국악단의 일반적인 관행에서 볼 때 소화하기 쉽지 않은 새로운 작품들로 공연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사카에 거주하는 전라남도도민에게는 창작국악의 폭과 깊이가 얼마만큼의 스펙트럼을 품고 있는지를 견실하게 맞출 기회가 될 것이다”며 공연을 앞두고 포부를 밝혔다.

김명덕문화예술과장은 “광양시립국악단의 공연이 오사카에 계신 도민들뿐만 아니라 교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고흥군, 명에도로명 ‘천경자예술길’ 생긴다

고흥군은 고흥 출신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인 천경자 화백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천경자예술길’이라는 명에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명에도로명은 실제 주소로 사용되는 않지만, 지역사회와 관련된 인물의 사회공헌도와 공익성, 상징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간 지정할 수 있다.

‘천경자예술길’로 명에도로명이 부여되는 구간은 고흥읍 중심부의 봉황길과 옥상길을 거쳐 천 화백의 생가가 있는 옥상마을 일대까지 약 851m에 이른다. 특히, 생가와 인접한 이 구간은 천 화백의 삶과 예술적 배경을 재조명할 수 있는 상징적 장소로 의미가 크다.

군은 이번 천경자 화백의 탄생 100주

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해 명에도로명을 부여하고, ‘천경자예술거리’를 조성하여 고흥 지역의 문화와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천경자 화백은 고흥이 자랑하는 인물로, 천 화백의 업적을 기리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우리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있는 예술을 접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흥=심정우 기자